

시민교육연구  
제54권 3호 (2022년 9월) pp. 187~219.

## 한국과 미국의 금융교육 표준안 비교

박형준(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이 연구의 목적은 2020년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과 2021년에 CEE와 Jump\$tart가 공동 발간한 『National Standards for Personal Financial Education』을 비교하여 두 표준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다. 비교 준거는 두 나라 표준안의 공통적인 내용 체계를 고려하여 소득(수입), 지출, 저축, 투자, 신용, 위험의 여섯 가지 범주로 설정하였다. 먼저 두 표준안에 포함된 영역별 성취기준의 수와 비중을 비교한 결과, 한국 표준안에서는 학교급별로 뚜렷한 추세적 특징을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미국 표준안에서는 저학년일수록 소득(수입), 지출, 저축을, 고학년일수록 투자, 신용, 위험을 더 많이 다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 표준안에서는 지출과 신용을, 미국 표준안에서는 소득(수입)과 위험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두 표준안의 성취기준 내용을 비교한 결과, 영역별로 두 표준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금융교육 표준안의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중요한 논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금융교육, 금융교육 표준안, 개인금융, CEE, Jump\$tart

###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날로 복잡해지는 금융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금융역량을 키운 사람이 금융 복지(financial well-being)를 누릴 수 있다. 카이저 외(Kaiser et al., 2022)는 유명 학술지에 게재된 금융교육의 효과를 실험한 76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하여 금융교육이 금융 지식과 금융 행동에 긍정적인 인과적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인 결론을 발표하였다.

제대로 된 금융교육은 가정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아이는 가정의 도움만으로는 충분한 금융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가정 형편에 따라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과 접근 기회가 다르기 때문에 자칫 부의 대물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학교를 통한 효과적인 금융교육이 개인의 배경과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실용적이고 폭넓은 금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학교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경제교육협회(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이하 'CEE')는 1998년부터 2년에 한 번씩 미국 전역에서 경제·금융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47개 주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개인 금융(Personal Finance)을 포함하고 있고, 40개 주에서는 교육청이 교육과정 실행을 요구하고 있다. 27개 주에서는 고등학교에서 개인 금융 교육과정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개 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단일 과목으로, 14개 주에서는 다른 과목과 통합 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시기별로 약간의 부침은 있으나 1998년부터 2022년까지 대체로 미국에서 학교 금융교육은 꾸준히 강화되어 왔다(CEE, 2022: 10-11). 우리나라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경제」 과목의 한 단원을 개인 금융으로 설계하였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개인 금융을 위한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될 예정이다.

제대로 된 학교 금융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금융교육에 포함해야 하는가? 1995년에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교육 기관인 개인 금융 이해력을 위한 점프스타트 연합(JumpStart Coalition for Personal Financial Literacy, 이하 'JumpStart')은 1998년에 국가 수준의 금융교육 표준안을 발표했으며, 2015년에 4판까지 출판하였다. 전통적인 미국 경제교육 기관인 CEE 역시 2013년에 미국 금융교육 표준안을 출판하였다. 미국의 금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해 온 두 기관은 2021년에 공동으로 국가 금융교육 표준안을 발표하면서 “많은 교과 영역의 교육자, 관리자, 자료 개발자, 연구원, 후원자 등을 포함하여 금융 이해력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집단을 통합하고 안내하기 위하여 하나의 국가 금융교육 표준안을 만들었다.”라고 밝혔다(CEE and JumpStart, 2021, p. 4).

우리나라도 학교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에 금융감독원이 국가 금융교육 표준안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에는 그간의 금융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된 금융교육 표준안을 출간하였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 교육과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은 정부에서 법령으로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시된 학교 교육과정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온전한 금융교육의 내용을 모두 담을 수는 없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출판한 금융교육 표준안은 우리나라 금융교육에서 담아내야 할 내용 요소를 망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원이 2020년에 개정하여 출판한 금융교육 표준안과 CEE와 JumpStart가 2021년에 공동으로 출판한 미국 금융교육 표준안을 비교하고자 한다. 두 표준안은 두 나라를 대표하는 금융교육 표준안이다. 두 표준안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봄으로써 각 나라가 금융교육의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교육의 표준적인 내용 체

계를 정립해 나가는 데 주요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2장과 3장에서는 각각 한국과 미국의 금융교육 표준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 두 나라 표준안을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비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 결과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 II. 한국의 금융교육 표준안

금융감독원은 2010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하여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발하였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발한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김정호 외, 2010: 56-57).

첫째, 국가 교육과정에 금융교육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2009년에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고등학교 「경제」 과목에 개인 금융 단원이 신설되었다. 이전에는 「경제」 과목에서 거시 금융 관련 내용(중앙은행, 통화정책 등)만 다루었고 개인 금융 관련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과목에 개인 금융 단원을 신설한 것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필요한 금융교육의 내용을 모두 반영할 수 없었으며, 다른 선진국의 표준안 개발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표준안의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금융교육 도서 개발의 준거 체제로 설정하기 위함이다. 금융교육은 학교 정규 교과뿐 아니라 창의체험 활동이나 방과 후 학교와 같은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비교과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인정도서 등을 개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준거 체제가 필요한데, 금융교육 표준안의 내용 요소와 학교급별 성취기준 등은 인정도서 내용의 범위와 수준 등을 결정하는 데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금융교육 내용 구성의 준거 체제로 제시하기 위함이다. 금융업과 관련한 다양한 공공기관이나 단체, 금융회사 등이 초·중·고 학생,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금융교육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각 기관이나 회사의 특성에 따라 제각각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교육하고 있어서 보편적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논리적, 경험적 근거가 보강될 필요가 있었다. 금융교육 표준안은 학교 밖 금융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회사가 교육과정을 기획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적인 모형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개발된 금융교육 표준안은 금융과 의사결정, 수입과 지출관리, 저축

과 투자, 신용과 부채관리, 위험관리와 보험의 다섯 개 대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대영역은 2~3개의 중영역으로 나누어서 총 13개의 중영역을 포함하였다. 학교급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각 중영역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금융교육 표준안 활용 해설서를 부록으로 첨부하여 각 성취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설명과 창의체험활동 자료까지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이듬해인 2011년에는 금융교육 표준안에 근거한 초·중·고 인정도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출판하고 일선 학교에 보급하였다(김종호·이준혁·이성숙, 2011a, 2011b; 천규승·차조일·문현주, 2011a, 2011b; 박영석·김재준·정석민, 2011a, 2011b).

금융교육 표준안 초판이 발표된 지 10년 후인 2020년에는 그간의 금융 환경과 금융교육의 목표 변화를 반영하여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정하였다. 금융교육 표준안의 개정 작업 역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하였다(이소연 외, 2020: 20-22).

먼저 개정의 배경인 금융 환경의 변화로는 디지털 금융서비스(DFS)의 확대와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금융과 접목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크라우드 펀딩, 웰스테크(로보어드바이저 등), 인슈어테크 등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확대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보급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금융 사기도 더욱 정교해지고, 불완전판매와 같은 금융 사고가 불거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금융교육 표준안에 반영해야 할 사회적 요구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금융교육의 목표가 금융 지식(금융 이해력)의 습득에서 금융 역량의 함양으로 전환되었다. 금융 역량은 금융 지식뿐 아니라 금융 태도와 금융 행동까지 포괄하는 보다 상위의 목표이다. 이러한 금융 역량의 함양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금융 복지(financial well-being)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융교육의 지향점으로 인식되었다(박형준, 2021: 72-73). 이러한 금융교육의 목표 변화를 금융교육 표준안에 담아내는 것 역시 금융교육 표준안 개정의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2020년에 개정된 금융교육 표준안의 구성 체제는 2010년 초판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초판의 다섯 번째 대영역인 ‘위험관리와 보험’을 ‘보험과 은퇴설계’로 명칭만 수정하였으며, 중영역 중에서는 ‘금융서비스와 보호’를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로 수정하였다. 또한 중영역 중에서 ‘위험관리’와 ‘보험’으로 각각 나뉘어 있던 것을 ‘위험관리와 보험’이라는 하나의 중영역으로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중영역의 수도 총 12개로 줄었다. 2020년에 개정된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의 내용 체계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2020 개정 금융교육 표준안 내용 체계

대영역	중영역	핵심 내용 요소
금융과 의사결정	합리적 금융생활	돈과 거래, 금융의사결정, 의사결정과 책임
	개인 재무관리	재무관리 필요성, 재무목표와 재무계획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환경과 금융서비스, 금융소비자 보호
수입과 지출관리	예산	예산, 예산관리
	수입	소득, 소득결정요인, 처분가능소득
	지출	구매의사결정, 지불 수단, 합리적 지출
저축과 투자	저축	저축, 저축 상품, 저축 습관 형성, 예금자 보호 제도
	투자	투자, 금융 상품, 자산 관리, 투자자 보호 제도
신용과 부채관리	신용관리와 대출	신용과 책임, 대출
	부채관리	부채, 부채관리, 신용 회복 지원 제도
보험과 은퇴설계	위험관리와 보험	위험관리, 보험
	은퇴설계	은퇴설계, 은퇴 후 자산관리

자료: 이소연 외(2020: 52)

개정 표준안에서도 초판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누어 각 중영역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문서체제와 유사하게 성취기준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성취기준 해설과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제공한다. 초판과 달라진 점은 영역별·학교급별 핵심 성취기준을 표시하여 4차시 이내로 금융교육을 수행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판이 발표된 이듬해인 2021년에는 개정 표준안에 따라 초·중·고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를 전면 개정하여 널리 확산하고 있다(한진수·이바름·정수진, 2021a, 2021b; 박형준·김재준·정석민, 2021a, 2021b; 장경호·하준호·김혜정, 2021a, 2021b).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개정 표준안에 포함된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의 예시를 보여준다. [초-II-2-①]의 숫자는 각각 초등학교(초), 두 번째 대영역(II), 두 번째 중영역(2), 첫 번째 성취기준(①)을 의미한다.

초	중	고
[초-11-2-①] 소득의 다양한 원천을 확인한다.	[중-11-2-①] 소득이 수입의 주요 원천임을 이해한다.	
	[중-11-2-②] 직업, 교육, 기술, 보유 자산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중-11-2-③] 다양한 직업들의 교육, 자격 수준, 예상 소득을 비교할 수 있다.	[고-11-2-①]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알 수 있다.
		[고-11-2-②] 총소득과 처분가능 소득을 구분하고, 처분가능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한다.

자료: 이소연 외(2020: 105-26)

[그림 1] 개정 표준안의 성취기준 (예시)

**가. 초등학교**

\*[초-11-2-①] 소득의 다양한 원천을 확인한다.

④ 성취기준 해설

- [초-11-2-①]에서는 생산 활동에 기여한 대가로 얻은 돈인 소득의 종류를 파악하도록 한다. 소득의 명칭을 학습하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사례를 통해 소득이 생산 활동에 대한 서로 다른 기여를 통해 구분되는 것임을 학습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④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 [초-11-2-①]에서는 가상의 가게부를 통해 소득을 확인하고 서로 다른 성격의 소득을 구분하게 하는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자료: 이소연 외(2020: 105-27)

[그림 2] 개정 표준안의 교수학습 방법 등 (예시)

### Ⅲ. 미국의 금융교육 표준안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교육 기관인 Jump\$tart는 1998년에 미국 금융교육 표준안인 『National Standards in K-12 Personal Finance Education』 초판을 발간하였다. 그 이후 2001년에 2판, 2007년에 3판, 2015년에 4판을 차례로 발간하며 금융교육 표준안을 주도하였다.

Jump\$tart(2015)의 금융교육 표준안은 지출과 저축(Spending and Saving), 신용과 부채(Credit and Debt), 고용과 소득(Employment and Income), 투자(investing), 위험관리와 보험(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금융 의사 결정(Financial Decision Making)의 여섯 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를 유치원(K), 4학년(G4), 8학년(G8), 12학년(G12)으로 구분하고, 각 학년에 도달할 때까지 학습해야 할 성취기준(standards)과 학습자가 각 성취기준을 얼마나 학습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준거(benchmarks)를 함께 제시한다(박형준, 2020). Jump\$tart 금융교육 표준안은 유치원과 4학년까지는 지출과 저축, 금융 의사 결정 영역의 성취기준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8학년과 12학년까지는 신용과 부채, 고용과 소득, 투자, 위험관리와 보험의 성취기준을 상대적으로 많이 학습하도록 설계되었다(박형준, 2017: 95).

또 다른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교육 기관인 CEE 역시 2013년에 미국 금융교육 표준안 『National Standards for Financial Literacy』를 출간하였다. CEE는 오랫동안 경제교육 전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해 왔으며, 1997년에 출판한 『Voluntary National Content Standards in Economics』는 2010년 개정판을 거쳐 현재까지 경제교육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CEE는 최근 10여 년간 금융교육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성과 중 하나가 2013년에 출간한 금융교육 표준안이라고 할 수 있다.

CEE(2013)의 금융교육 표준안은 소득(Earning Income), 구매(Buying Goods and Services), 저축(Saving), 신용 사용(Using Credit), 금융 투자(Financial Investing), 위험관리와 보험(Protecting and Insuring)으로 이루어졌다. Jump\$tart(2015)와 유사하게 학습자를 4학년(G4), 8학년(G8), 12학년(G12)으로 구분하였으나 유치원(K)을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물론 각 학년까지 학습해야 할 성취기준을 제시하였으므로 4학년(G4)까지 학습해야 할 성취기준에 유치원(K)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이 포함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각 학년을 마칠 때까지 학습자가 알아야 할 지식과 그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CEE(2013)의 금융교육 표준안은 저학년에서는 소득, 구매, 저축 영역을 많이 학습하고, 고학년에서는 신용 사

용, 금융 투자, 위험관리와 보험을 많이 학습하도록 구성되었다(박형준, 2017: 91).

CEE와 Jump\$Start는 2021년에 하나로 통합된 국가 금융교육 표준안인 『National Standards for Personal Financial Education』을 공동 발표하였다. 이 표준안은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의 교육(K-12)을 통해 학습자가 습득해야 할 개인 금융 관련 지식, 기능, 의사결정 능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CEE와 Jump\$Start(2021)가 공동 개발한 금융교육 표준안은 소득(Earning Income), 지출(Spending), 저축(Saving), 투자(Investing), 신용관리(Managing Credit), 위험관리(Managing Risk)의 여섯 개 영역(주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여섯 개의 영역은 CEE(2013)의 표준안과 거의 일치하며, Jump\$Start(2015)의 표준안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Jump\$Start(2015) 표준안과 명시적으로 다른 점은 금융 의사 결정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금융 의사 결정 영역의 성취기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여섯 개의 각 해당 영역에 결합되었다(CEE & Jump\$Start, 2021: 5).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세 가지 표준안의 영역 구조를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미국 금융교육 표준안의 영역 비교

Jump\$Start(2015)	CEE(2013)	CEE와 Jump\$Start(2021)
고용과 소득	소득	소득
지출과 저축	구매	지출
	저축	저축
신용과 부채	신용 사용	신용관리
투자	금융 투자	투자
위험관리와 보험	위험관리와 보험	위험관리
금융 의사 결정	×	×

CEE와 Jump\$Start(2021)의 표준안에서는 학습 단계를 4학년(G4), 8학년(G8), 12학년(G12)으로 구분하고, 각 학년을 마칠 때까지 알아야 할 성취기준(Standards)과 각 성취기준의 도달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학습성과(Learning Outcomes)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하나의 성취기준에 대해 2~4개의 학습성과가 있다. <표 3>은 CEE와 Jump\$Start(2021)의 표준안에 포함된 성취기준과 학습성과의 예시를 보여준다.<sup>1)</sup> ‘소득 4-1’은 소득 영역에서 4학년까지 알아야 할 첫 번째 성취기준이라는 의미이다.

1) 여기서는 CEE와 Jump\$Start(2021)의 표준안을 번역한 김종성(2022)의 번역을 참고한다.



<표 3> CEE와 Jump\$start(2021) 표준안의 성취기준과 학습성과 (예시)

	성취기준	학습성과
소득 4-1	사람에게는 지식, 기능, 관심, 경험에 따라 서로 다른 직업 선택 기회가 있다.	4-1a. 다양한 직업을 열거한다. 4-1b. 다양한 직업에 요구되는 지식, 기능, 관심, 경험들을 논의한다.
소득 4-2	사람은 새 지식, 기능, 경험을 쌓음으로써 소득을 버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4-2a. 개인의 지식, 기능, 경험이 소득을 버는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를 제시한다. 4-2b. 소득을 버는 자신의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을 브레인스토밍한다.
소득 4-3	노동에 대한 대가는 임금, 월급, 수수료, 팁 등 다양하다.	4-3a. 고용주가 노동을 제공한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4-3b. 임금, 월급, 수수료, 팁의 차이점을 서술한다. 4-3c. 식당 웨이터, 교사, 부동산 중개인이 전형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비교한다.
(생략)	(생략)	(생략)

자료: 김종성(2022: 74-75)

#### IV. 한국과 미국의 금융교육 표준안 비교

여기서는 한국과 미국의 금융교육 표준안을 구체적으로 비교한다. 비교 대상인 한국의 금융교육 표준안은 금융감독원에서 2020년에 개정 발간한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이하 ‘한국 표준안’)이고, 미국 금융교육 표준안은 CEE와 Jump\$start가 2021년에 공동으로 출판한 『National Standards for Personal Financial Education』(이하 ‘미국 표준안’)이다.

##### 1. 두 나라 표준안의 영역 구조 비교

<표 4>는 두 나라 표준안의 영역 구조를 비교한 것이다. 한국 표준안은 크게 다섯 개의 대영역과 12개의 중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영역별로 2~3개의 중영역을 포함한다. 반면 미국 표준안은 여섯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lt;표 4&gt; 두 나라 표준안의 영역 구조

한국 표준안		미국 표준안	비교 범주
대영역	중영역	주제(Topics)	
금융과 의사 결정	합리적 금융생활	×	×
	개인 재무관리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수입과 지출관리	수입	소득(Earning Income)	소득(수입)
	지출	지출(Spending)	지출
	예산		
저축과 투자	저축	저축(Saving)	저축
	투자	투자(Investing)	투자
신용과 부채관리	신용관리와 대출	신용관리(Managing Credit)	신용
	부채관리		
보험과 은퇴설계	위험관리와 보험	위험관리(Managing Risk)	위험
	은퇴설계	×	×

한국 표준안에 포함된 금융과 의사 결정 대영역은 미국 표준안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앞서 미국 표준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JumpStart(2015) 표준안에서는 금융 의사 결정 영역이 포함되어 있었고, CEE(2013) 표준안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021년에 두 기관이 공동으로 미국의 금융교육 표준안을 출판할 때 CEE(2013) 표준안의 기본 구조를 따르면서 JumpStart(2015) 표준안의 금융 의사 결정은 여섯 개의 각 주제로 결합되었다. 4장 3절의 ‘영역별 성취기준 내용 비교’에서는 미국 표준안에 등장하는 일부 성취기준이 한국 표준안의 금융과 의사 결정 대영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한국 표준안의 은퇴설계 중영역 역시 미국 표준안에는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 표준안의 소득, 저축에 포함된 일부 성취기준은 한국 표준안의 은퇴설계 중영역과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4장 3절의 ‘영역별 성취기준 내용 비교’에서 따로 언급할 것이다.

이하 2절과 3절에서는 각각 두 나라 표준안에 포함된 영역별 성취기준의 비중과 내용을 차례로 비교하고자 한다. 두 나라 표준안의 양적·질적 비교를 위하여 소득(수입), 지출, 저축, 투자, 신용, 위험의 여섯 개 영역(주제)을 비교 범주로 삼아 두 나라 표준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또한 학교급별 비교를 위해 편의상 한국 표준안의 초등학교와 미국 표준안의 4학년(G4), 중학교와 8학년(G8), 고등학교와 12학년(G12)을 각각 대응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 2. 영역별 성취기준 비중 비교

<표 5>는 두 나라 표준안의 영역별 성취기준 수와 비중(%)을 요약한 것이다. 비중은 각 학교급 성취기준 수 대비 해당 영역 성취기준 수의 비중을 의미한다.

**<표 5> 두 나라 표준안의 성취기준 수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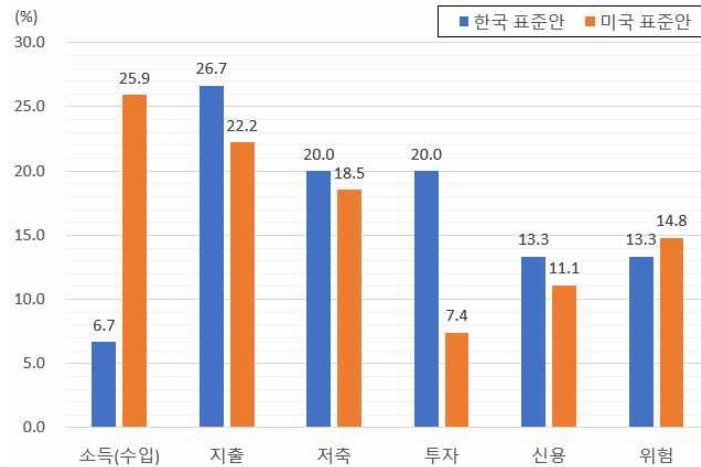
영역 (주제)	한국 표준안				미국 표준안			
	초(G4)	중(G8)	고(G12)	합계	초(G4)	중(G8)	고(G12)	합계
소득 (수입)	1 6.7%	3 13.6%	2 9.5%	6 10.3%	7 25.9%	9 22.5%	11 16.2%	27 20.0%
지출	4 26.7%	5 22.7%	5 23.8%	14 24.1%	6 22.2%	4 10.0%	9 13.2%	19 14.1%
저축	3 20.0%	3 13.6%	2 9.5%	8 13.8%	5 18.5%	6 15.0%	9 13.2%	20 14.8%
투자	3 20.0%	3 13.6%	5 23.8%	11 19.0%	2 7.4%	7 17.5%	14 20.6%	23 17.0%
신용	2 13.3%	6 27.3%	5 23.8%	13 22.4%	3 11.1%	7 17.5%	13 19.1%	23 17.0%
위험	2 13.3%	2 9.1%	2 9.5%	6 10.3%	4 14.8%	7 17.5%	12 17.6%	23 17.0%
합계	15 100.0%	22 100.0%	21 100.0%	58 100.0%	27 100.0%	40 100.0%	68 100.0%	135 100.0%

먼저 한국 표준안을 살펴보면, 초등학교(G4)에서는 지출 비중이 26.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저축(20.0), 투자(20.0), 신용(13.3), 위험(13.3), 소득(수입)(6.7)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G8)에서는 신용 비중이 27.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지출(22.7), 소득(수입)(13.6), 저축(13.6), 투자(13.6), 위험(9.1) 순이었다. 고등학교(G12)에서는 지출, 투자, 신용 비중이 각각 23.8%로 높은 반면 소득(수입), 저축, 위험 비중이 각각 9.5%로 낮게 나타났다. 한국 표준안 전체에서는 지출 비중이 24.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신용(22.4), 투자(19.0), 저축(13.8), 소득(수입)(10.3), 위험(10.3) 순이었다.

다음으로 미국 표준안을 살펴보면, 초등학교(G4)에서는 소득(수입) 비중이 25.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지출(22.2), 저축(18.5), 위험(14.8), 신용(11.1), 투자(7.4) 순이었다. 중학교(G8)에서도 소득(수입) 비중이 22.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투자(17.5), 신용(17.5), 위험(17.5), 저축(15.0), 지출(10.0)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G12)에서는 투자 비중이 20.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신용(19.1), 위험(17.6), 소득(수입)(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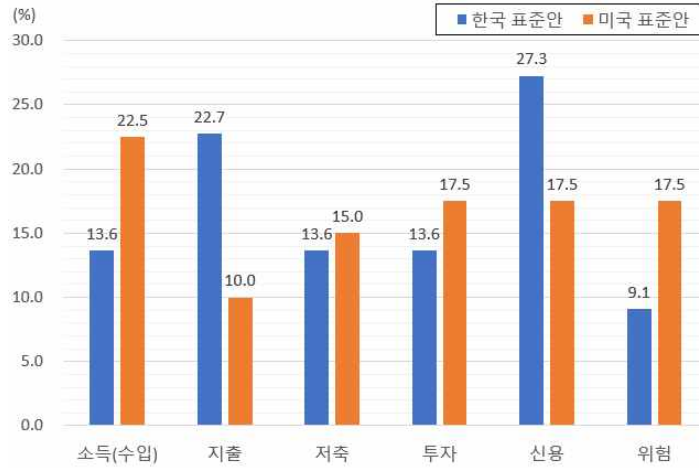
지출(13.2), 저축(13.2) 순이었다. 미국 표준안 전체에서는 소득(수입) 비중이 20.0%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투자, 신용, 위험이 각각 17.0%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저축(14.8), 지출(14.1) 순이었다.

한국 표준안에서는 학교급별 뚜렷한 추세적인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지출 비중이 모든 학교급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았고, 저축 비중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진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반면 미국 표준안에서는 학교급별 뚜렷한 추세적인 특징이 나타났다. 소득(수입), 지출, 저축 비중은 대체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투자, 신용, 위험 비중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결국 미국 표준안에서는 소득(수입), 지출, 저축 영역은 저학년에서, 투자, 신용, 위험 영역은 고학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성취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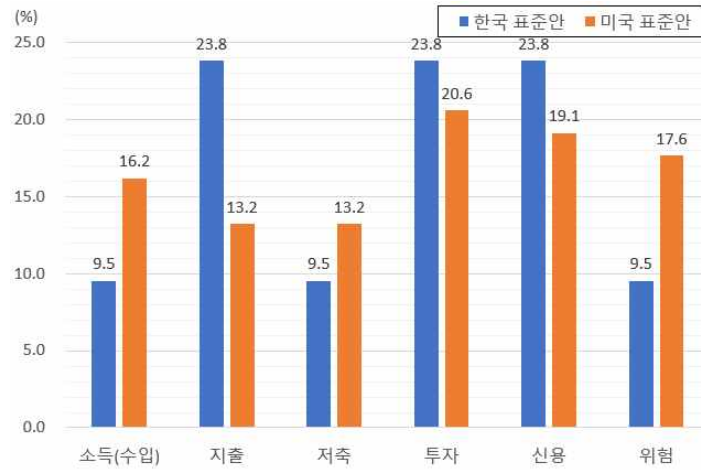
[그림 3] 초등학교(G4) 성취기준 비중 비교

이제 학교급별로 두 나라 표준안의 성취기준 비중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은 두 나라 표준안의 초등학교(G4) 성취기준 비중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두 나라 표준안에서 5%p 이상 비중 차이가 나타나는 영역은 소득(수입)과 투자 영역이었다. 소득(수입) 비중은 한국 표준안보다 미국 표준안에서 19.2%p 높았으며, 반대로 투자 비중은 미국 표준안보다 한국 표준안에서 12.6%p 높았다. 요약하면 초등학교(G4) 수준에서 한국 표준안은 미국 표준안보다 투자 영역을, 미국 표준안은 한국 표준안보다 소득(수입) 영역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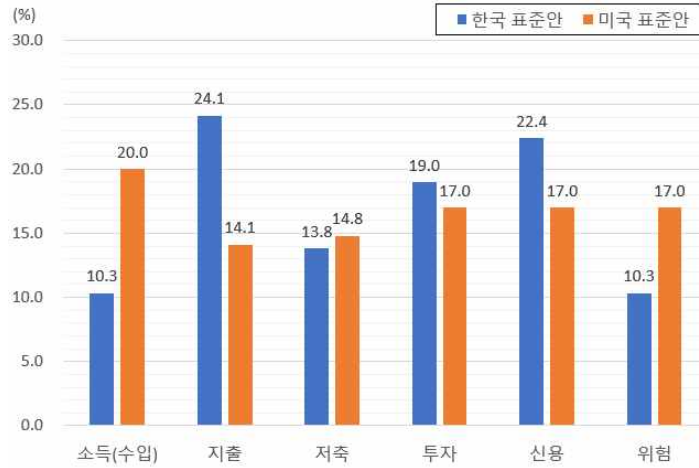
[그림 4] 중학교(G8) 성취기준 비중 비교

[그림 4]는 두 나라 표준안의 중학교(G8) 성취기준 비중을 비교한 것이다. 중학교(G8)에서는 초등학교(G4)보다 두 나라 표준안의 영역별 비중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두 나라 표준안에서 5%p 이상 비중 차이가 나타나는 영역은 소득(수입), 지출, 신용, 위험 영역으로 여섯 개 영역 중 네 개 영역이었다. 소득(수입) 비중은 한국 표준안보다 미국 표준안에서 8.9%p 높았으며, 위험 비중은 8.4%p 높았다. 반대로 지출 비중은 미국 표준안보다 한국 표준안에서 12.7%p 높았으며, 신용 비중은 9.8%p 높게 나타났다. 정리하면 중학교(G8) 수준에서 한국 표준안은 미국 표준안보다 지출과 신용 영역을, 미국 표준안은 한국 표준안보다 소득(수입)과 위험 영역을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그림 5] 고등학교(G12) 성취기준 비중 비교

[그림 5]는 두 나라 표준안의 고등학교(G12) 성취기준 비중을 비교하여 요약한 것이다. 고등학교(G4)에서도 두 나라 표준안의 영역별 비중 차이가 비교적 잘 드러났다. 두 나라 표준안에서 5%p 이상 비중 차이가 나타나는 영역은 소득(수입), 지출, 위험 영역으로 여섯 개 영역 중 세 개 영역이었다. 소득(수입) 비중은 한국 표준안보다 미국 표준안에서 6.7%p 높았으며, 위험 비중은 8.1%p 높았다. 반대로 지출 비중은 미국 표준안보다 한국 표준안에서 10.6%p 높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고등학교(G8) 수준에서 한국 표준안은 미국 표준안보다 지출 영역을, 미국 표준안은 한국 표준안보다 소득(수입)과 위험 영역을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이런 고등학교(G12) 결과는 중학교(G8) 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 전체 성취기준 비중 비교

마지막으로 [그림 6]은 두 나라 표준안의 전체 성취기준 비중을 비교한 것이다. 전반적인 두 나라 표준안의 영역별 비중 차이를 비교적 쉽게 살펴볼 수 있다. 두 나라 표준안에서 5%p 이상 비중 차이가 나타나는 영역은 소득(수입), 지출, 신용, 위험 영역으로 여섯 개 영역 중 네 개 영역이었다. 소득(수입) 비중은 한국 표준안보다 미국 표준안에서 9.7%p 높았으며, 위험 비중은 6.7%p 높았다. 반대로 지출 비중은 미국 표준안보다 한국 표준안에서 10.0%p 높았으며, 신용 비중은 5.4%p 높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한국 표준안은 미국 표준안보다 지출과 신용 영역을, 미국 표준안은 한국 표준안보다 소득(수입)과 위험 영역을 상대적으로 중시한다.

### 3. 영역별 성취기준 내용 비교

이제부터 두 나라 성취기준의 세부 내용을 비교한다. 각 성취기준의 정확한 의미와 내용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성취기준뿐 아니라 한국 표준안에서는 성취기준 해설과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을, 미국 표준안에서는 각 성취기준에 대응하는 학습성과(Leaning Outcome)를 함께 살펴보았다.

## 1) 소득(수입)

&lt;표 6&gt; 두 나라 표준안의 소득(수입) 영역 성취기준 비교

학교급	한국 표준안	미국 표준안
초등학교 (G4)	1. 소득의 다양한 원천	1.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직업선택, 2. 소득을 얻기 위한 자신의 능력 개선, 3. 근로 소득, 4. 사업 소득, 5. 재산 소득, 6. 이전 소득, 7. 소득에 대한 과세
중학교 (G8)	1. 소득이 수입의 원천, 2. 직업, 교육, 기술, 보유 자산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 3. 다양한 직업의 교육, 자격 수준, 예상 소득 비교	1. 경력, 직업 전문성, 2. 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교육, 직업, 경력), 3. 교육, 훈련, 경험이 많을수록 인적자본, 생산성, 소득 획득 잠재력 향상, 4. 교육, 훈련, 직무 기술 개발에 기회비용(시간, 노력, 돈) 발생, 5. 순소득, 6. 사회보장제도, 7. 소득에 대한 과세, 8.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소득 지원, 9. 기업가와 이윤
고등학교 (G12)	1. 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 2. 총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의 구분, 처분가능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고용에 대한 급여와 비급여 형태의 보상, 2. 비금전적 혜택(작업 환경, 유연 근로 시간, 재택근무) 3. 미래 소득 창출을 위한 현재 비용(추가 교육, 훈련) 4. 교육, 기술, 생산성에 따른 임금 차이, 5. 경제 환경, 기술, 노동 시장의 변화가 고용 조건에 주는 영향, 6. 소득 관련 다양한 세금, 7. 소득과 지출의 양과 형태에 따른 세금 차이, 8. 재산 소득과 세금, 9.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10. 퇴직 후 소득, 11. 소규모 자영업과 소득

<표 6>은 한국과 미국 표준안의 소득(수입) 영역에 포함된 성취기준을 요약한 것이다. 초등학교(G4)에서는 두 나라 표준안 모두 소득의 다양한 원천(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을 다루고 있다. 미국 표준안에서는 소득의 원천을 배우기 전에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고 소득을 얻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우고, 마지막에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표준안과 차이가 있다.

중학교(G8)에서는 두 표준안이 공통으로 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루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한국 표준안에서는 소득과 수입의 개념 차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특정 직업의 교육, 자격 수준, 예상 소득을 파악하게 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미국 표준안에서는 교육, 훈련, 경험이 개인의 인적자본을 향상하고 소득을 증가시키지만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또한 순소득, 사회보



장제도, 소득세,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 보전, 이윤의 성격 등 소득(수입) 관련 내용을 훨씬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교(G12)에서는 두 표준안의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굳이 찾자면, 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교육, 기술, 생산성에 따른 임금의 차이) 정도이다. 한국 표준안에서는 처분가능소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표준안의 중학교(G8) 순소득(임금, 급여에서 세금과 공제액 제외)과 관련이 있다. 미국 표준안에서는 고용에 대한 다양한 보상과 혜택, 미래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현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 고용 조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소득 관련 다양한 세금, 소규모 자영업과 소득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소득 공제(tax deductions)와 세액 공제(tax credits)까지 다룬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한국과 달리 미국 표준안에서는 은퇴설계 영역이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소득(수입) 영역의 ‘퇴직 후 소득’ 성취기준에서 퇴직연금 관련 내용을 일부 소개하고 있다.

## 2) 지출

**<표 7> 두 나라 표준안의 지출 영역 성취기준 비교**

학교급	한국 표준안	미국 표준안
초등학교 (G4)	(지출) 1. 상품에 대한 정보 파악, 2. 다양한 지불 수단	1. 소비재에 대한 선호, 우선순위, 가용 자원의 개인별 차이, 2. 소비 만족을 얻기 위한 돈의 지출, 3. 지출 시 기회비용 발생, 4. 구매 결정에 따른 비용과 편익, 5.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가격, 대안, 또래 압력, 광고), 6. 지불 수단
	(예산) 3. 계획을 세워 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4. 용돈관리의 중요성 이해와 용돈기입장 작성	
중학교 (G8)	(지출) 1.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2. 지불방법에 따른 효과 비교, 3. 합리적 구매의사결정과정	1. 지출, 저축, 돈 관리에 관한 현명한 선택을 돕는 예산 수립, 2. 현명한 구매결정을 위한 고려점, 3.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정보 평가(정보 제공자의 인센티브 고려), 4. 각 지불 수단의 비용과 편익
	(예산) 4. 수입과 지출의 개념 이해, 5. 예산관리방법	
고등학교 (G12)	(지출) 1.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의 개념과 유형, 2. 지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자신의 소비 평가	1. 재무목표 성취를 돕는 예산 수립, 2. 소비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3. 장기 간 사용을 위한 구매 시 고려점, 4. 소비자에 대한 광고와 가격협상 가능 여부의 영향 5. 구매 관련 정보 탐색의 비용과 편익, 6. 주택 결정 시 고려점, 7. 자선과 기부, 8.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규제, 기관, 9. 지출, 저축, 투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조직화된 체계
	(예산) 3. 예산 수립 과정에서 기대 수입 추정, 항목별 지출계획 수립, 4. 예산관리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개인적 사회적 결과, 5. 개인과 가계의 예산을 수립, 점검, 평가	

<표 7>은 한국과 미국 표준안의 지출 영역에 포함된 성취기준을 요약한 것이다. 한국 표준안에는 예산이 수입과 지출관리 대영역의 중영역으로 별도 구성된 반면, 미국 표준안에서는 예산이 중학교(G8)와 고등학교(G12)의 지출 영역의 일부 성취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한국 표준안 수입과 지출관리 대영역의 지출과 예산 중영역과 미국 표준안 지출 영역을 비교한다.

초등학교(G4)에서는 두 나라 표준안에 지불수단(현금, 수표, 체크카드, 신용카드)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한국 표준안에서는 상품 정보, 돈 사용을 위한 계획의 중요성, 용돈기입장 작성을 추가로 다루고 있다. 미국 표준안에서는 예산 관련 성취기준이 포함되지 않은 반면, 사람마다 소비재에 대한 선호, 우선순위 등이 다르다는 점, 소비 만족을 얻기 위해 돈을 지출하지만 지출 시 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여러 대안이 주는 만족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 초등학생 수준의 현명한 지출을 위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중학교(G8)에서는 두 나라 표준안 모두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현명한 구매결정을 위한 고려점)과 각 지불수단을 비교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한국 표준안에서는 합리적 구매의사결정과정(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대안선택, 구매 후 평가)의 이해와 실행, 예산의 핵심 요소인 수입과 지출의 개념, 구체적인 예산관리방법(용돈기입장, 봉투분류법, 가계부(앱) 등)의 이해를 추가로 제시한다. 이와 달리 미국 표준안에서는 예산 수립의 목적,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정보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상품 정보를 평가할 때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왜 그런 정보를 제공했는지(정보 제공자가 어떤 인센티브를 갖는지)를 함께 살펴볼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다.

고등학교(G12)에서는 두 나라 표준안의 공통점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한국 표준안에서는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의 개념,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욕구, 자원의 부족량, 비용 등)과 자신의 소비에 대한 평가, 구체적인 예산 수립 과정, 적절한 예산 관리의 중요성 등을 다루고 있다. 반면 미국 표준안에서는 재무목표 성취를 위한 예산 수립, 내구재 등 장기간 사용하는 재화의 구매 시 고려점, 광고와 가격협상 가능 여부가 소비자에게 주는 영향, 정보탐색의 비용과 편익, 주택 결정 시 고려점, 자선과 기부, 소비자보호법, 지출·저축·투자의 기록 방법을 포괄하여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표준안에서는 예산관리방법을 중학교(G4)에서 다루지만 미국 표준안에서는 고등학교(G12)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도 두 나라 표준안의 차이점이다.

### 3) 저축

<표 8> 두 나라 표준안의 저축 영역 성취기준 비교

학교급	한국 표준안	미국 표준안
초등학교 (G4)	1. 저축을 하는 이유, 2. 다양한 형태의 저축 방법, 3. 예적금 계좌 만들기	1. 저축(미래 소비를 위해 현재 지출하지 않는 것), 2. 저축 계획(미래를 위해 돈을 떼어 놓을 계획), 3. 저축에 대한 개인별 가치와 태도의 차이, 4. 저축 시 고려점 (안전과 접근 편리성), 5.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는 까닭
중학교 (G8)	1. 저축의 개념과 경제적 의미, 2. 저축 상품의 종류와 특성, 3. 단리와 복리의 개념, 차이와 효과	1. 저축의 목적, 2. 저축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3. 금융기관의 여신(대출 이자 수취)과 수신(예금 이자 지불) 4. 이자 계산 방법, 5. 단리와 복리, 6. 예금자 보호 제도
고등학교 (G12)	1. 저축 상품과 관련한 세금, 2. 예금자 보호 제도	1. 저축 상품의 종류, 2. 금융기관별 예금 이자율의 차이, 3. 모바일 결제 계좌와 암호화폐 계좌(예금자 보호 대상 제외, 이자 없음) 4. 저축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영향 5. 정부 기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규제, 6. 저축을 장려하는 과세 정책, 7. 근로자의 저축을 장려하는 제도 (DC형 퇴직연금 등), 8. 미래에 타인과의 재무적 분쟁을 줄이는 방법, 9. 저축에 방해되는 요소를 관리하는 전략(저축 계좌에 일정 금액 자동이체(ASP) 등)

<표 8>은 한국과 미국 표준안의 저축 영역에 포함된 성취기준을 요약한 것이다. 초등학교(G4)에서는 두 나라 표준안의 공통점으로 저축의 의미와 필요성 정도를 들 수 있다. 여기에 한국 표준안은 다양한 저축 방법, 예적금 계좌 만들기 같은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저축 방법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 표준안은 저축에 대한 가치와 태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저축할 때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기초적인 저축에 대한 소양을 강조한다. 또한 금융기관이 왜 예금에 이자를 지불하는지 초등학교 수준에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중학교(G8)에서는 두 나라 표준안이 공통으로 저축의 의미와 목적, 단리와 복리의 차이와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다 한국 표준안은 구체적인 저축 상품(정기예금, 정기적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청약예금, 주택종합청약저축 등)을 추가하고 있다. 미국 표준안에서는 구체적인 저축 상품을 소개하는 대신 저축 의사결정이 개인의 선호와 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점,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 수취와 예금 이자 지불,

예금자 보호 제도 등을 추가로 다루고 있다.

고등학교(G12)에서는 저축과 관련한 세금 정도를 두 나라 표준안의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다. 두 나라의 표준안 모두 저축과 관련한 세금의 종류뿐 아니라 저축 장려를 목적으로 한 과세 제도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한국 표준안에서는 예금자 보호 제도를 다루고 있는데, 미국 표준안에서는 중학교(G8)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한편 미국 표준안에서는 저축 상품의 종류(정기적금, MMDA, CD 등), 모바일 결제 계좌와 암호화폐 계좌의 특징, 저축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규제, 근로자의 저축 장려 제도(DC형 퇴직연금), 저축 장려를 위한 전략(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저축 계좌에 자동이체하기(automated savings plan), 근로자가 퇴직연금 계좌에 저축하면 고용주가 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결합해서 저축해 주는 제도(employer matches) 등)에 이르기까지 저축 관련 성취기준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저축 장려 제도로 소개하고 있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고용주 매칭 저축 등은 한국 표준안의 은퇴설계 영역과 관련한 내용이다. 소득 영역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 표준안에서는 따로 은퇴설계 영역을 두고 있지 않은 대신 일부 영역에서 은퇴설계와 관련한 성취기준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 표준안과 다른 점이다.

#### 4) 투자

<표 9>는 한국과 미국 표준안의 투자 영역에 포함된 성취기준을 요약한 것이다. 초등학교(G4)에서는 두 나라 표준안 모두 투자의 목적과 필요성, 저축과 투자의 차이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한국 표준안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등을 반영하여 시간에 따라 돈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을 초등학교 수준에서 다루도록 제안하고 있다. 미국 표준안은 두 나라 표준안이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 외에 추가된 성취기준이 없다.

중학교(G8)에서는 금융 투자 상품의 종류(금융 자산의 종류), 직접투자(주식과 채권 투자)와 간접투자(펀드 투자) 관련 성취기준이 두 나라 표준안의 공통점이다. 여기에 한국 표준안은 투자할 때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하고 있다. 반면 미국 표준안은 투자의 형태에 따라 위험 정도가 다르다는 점, 부의 복리 효과로 인해 장기 적립식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추가로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표준안의 ‘투자할 때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 표준안의 ‘투자의 형태에 따라 위험 정도가 다르다는 점’과 일부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다.

<표 9> 두 나라 표준안의 투자 영역 성취기준 비교

학교급	한국 표준안	미국 표준안
초등학교 (G4)	1. 시간에 따른 돈의 가치 변화, 2. 투자의 개념과 필요성, 3. 투자와 저축의 공통점과 차이점	1. 투자의 목적(자산 증식, 장기 재무목표 달성), 2. 저축과 투자의 차이점
중학교 (G8)	1. 금융 투자 상품의 종류와 특징, 2. 투자에서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고려, 3.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구분	1. 투자의 목적(자산가치 증대, 정기적 수입 창출), 2. 금융 자산의 종류, 3. 채권 투자, 4. 주식 투자, 5. 펀드 투자(뮤추얼 펀드, ETF), 6. 투자 형태에 따른 위험의 차이, 7. 장기 적립식 투자의 중요성(부의 복리 효과)
고등학교 (G12)	1. 투자정보의 원천 파악,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구별, 2.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금리변동, 인플레이션, 환율변동 등), 3. 포트폴리오 개념과 분산투자의 필요성, 4. 투자에 따른 위험과 자기 책임의 원칙, 5. 투자자 보호 제도	1. 개인의 투자 위험 감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 2. 투자 수익과 명목 연 수익률, 3. 고위험과 고수익, 4.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의한 명목 수익과 실질 수익의 차이, 5. 금융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 6. 분산투자과 자산배분 시 고려점(자신의 위험 허용 범위, 투자 목표, 투자 기간), 7. 금융자산 거래와 보유에 드는 비용, 8.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과세 제도, 9. 투자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행동 편향, 10. 부정적 행동 요인을 상쇄할 수 있는 금융 기술, 11. 금융 기술을 활용한 저렴한 투자서비스와 자문을 제공하는 금융투자회사, 12. 정부의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13. 벤치마크 지수와 투자 성과 비교, 14. 투자 자문을 얻기 위해 금융 전문가를 선택하는 기준

고등학교(G12)에서는 명시적으로 두 표준안의 공통점을 찾기 어렵다. 굳이 찾자면 한국 표준안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미국 표준안의 인플레이션의 영향, 금융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표준안의 포트폴리오 개념과 분산투자의 필요성과 미국 표준안의 분산투자과 자산배분 시 고려점에서 약간 겹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표준안에서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분산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 표준안에서는 그런 분산투자를 할 때 투자자는 자신의 위험 허용 범위, 투자 목표, 투자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한편 한국 표준안의 투자자 보호 제도와 미국 표준안의 정부의 금융시장 규제는 금융 사기 등 금융 피해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한다는 점에서 일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 외에 한국 표준안에서는 투자 정보, 자기 책임의 원칙을 추가로 다루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 표준안은 투자와 관련한 매우 세부적인 내용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투자 위험 감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성격, 금융자원, 투자 경험, 생활환경), 투자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연 수익률, 명목수익, 실질수익), 금융자산 거래와 보유에 드는 비용,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과세 제도, 투자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동 편향(손실 회피, 심적 회계 등)과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금융 기술(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 매매 시스템 등),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서비스와 자문, 벤치마크 지수와 자신의 투자 성과 비교, 투자 자문을 얻기 위해 금융 전문가를 선택하는 기준 등이다.

### 5) 신용

<표 10>은 한국과 미국 표준안의 신용 영역에 포함된 성취기준을 요약한 것이다. 한국 표준안에서는 대영역인 신용과 부채관리 안에 중영역인 신용관리와 대출, 부채관리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미국 표준안에는 신용관리 영역 안에 주로 한국 표준안의 신용관리와 대출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미국 표준안에서는 신용사용과 대출의 결과로 만들어진 부채의 관리방법이 명시적으로 잘 드러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중학교(G8)와 고등학교(G12)의 일부 성취기준에서 부채관리 영역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 표준안의 신용과 부채관리 대영역과 미국 표준안의 신용관리 영역을 비교한다.

<표 10> 두 나라 표준안의 신용 영역 성취기준 비교

학교급	한국 표준안	미국 표준안
초등학교 (G4)	(신용관리와 대출) 1. 신용의 의미와 신용 사용의 비용  (부채관리) 2. 부채의 의미	1. 이자(돈을 빌린 사람이 지불하는 가격, 빌려준 사람의 소득), 2. 신용 사용(즉시 사용하고 미래에 이자와 함께 지불한다는 것), 3. 신용 정보(다른 부채가 없는지, 약속대로 갚은 기록이 있는지 등)
중학교 (G8)	(신용관리와 대출) 1. 대출의 의미와 필요성, 2. 대출의 종류와 장단점, 3. 신용 사용의 결과와 책임  (부채관리) 4. 부채의 다양한 측면과 부채관리의 필요성, 5. 과도한 부채로 인한 문제, 6. 부채규모의 적정 수준	1. 이자율과 수수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대출기관의 종류, 신용형태, 시장환경), 2. 금융기관의 대출광고(최초 광고보다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음), 3. 총 이자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상환 기간, 이자율), 4. 신용카드 이자율(다른 대출에 비해 높음), 5. 신용점수에 따른 이자율 차이, 6. 교육과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미래를 위한 투자), 7. 대출의 결과(부채 증가, 개인 재무에 부정적 영향)

학교급	한국 표준안	미국 표준안
고등학교 (G12)	(신용관리와 대출) 1. 신용사용과 관련한 비용 계산, 2. 신용점수와 신용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3. 우수한 신용점수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법	1. 신용사용의 비용 비교, 2. 담보대출과 무담보대출의 이자율 차이, 3.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 4. 대학 학자금 조달 방법(장학금, 보조금, 학자금 대출 등), 5. 정부 학자금 대출의 장점(낮은 이자율, 유리한 상환 조건), 6. 계약금(선금)의 이점(부채액 감소), 7. 대출기관의 차용인에 대한 신용도 평가, 8. 신용점수의 요인과 영향, 9. 신용보고서와 신용점수의 사용처(대출기관, 집주인, 고용주, 보험회사), 10. 부채상환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부채관리 지원, 11. 개인파산, 12. 소비자신용보호법 13. 대체 금융서비스(월급날 대출, 수표 현금화 서비스, 전당포 등)의 높은 비용
	(부채관리) 4. 부채상환방법과 기간에 따른 월부금과 총 소요비용의 차이, 5. 신용회복지원제도	

초등학교(G4)에서는 신용과 신용사용의 의미를 다룬다는 점이 두 나라 표준안의 공통점이다. 한국 표준안에서는 이 외에 부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 표준안에서는 이자와 신용정보를 초등학교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중학교(G8)에서는 한국 표준안의 부채의 다양한 측면과 미국 표준안의 교육과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 대출의 결과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국 표준안의 부채의 다양한 측면은 부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파악하게 하는 데 중점이 있다. 미국 표준안의 교육과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은 부채의 긍정적 측면(일종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대출의 결과는 부채의 부정적 측면(부채 증가, 개인 재무에 부정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는 두 나라 표준안의 공통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한국 표준안에서는 대출의 의미, 종류, 신용사용의 결과에 대한 자기 책임, 과도한 부채의 문제 등을 강조한 반면, 미국 표준안에서는 신용사용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율의 차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대출광고에서 제시한 이자율보다 나중에 더 높은 이자율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 신용카드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신용점수에 따라 이자율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등학교(G12)에서는 두 나라 표준안의 공통점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신용사용의 비용, 신용점수 관련 내용이 두 나라 표준안의 명시적인 공통점으로 열거될 수 있다. 또한 한국 표준안의 부채상환방법과 기간에 따른 월부금과 총 소요비용의 차이와 미국 표준안의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비슷한 내용 요소를 담고 있다. 한국 표준안의 신용회복지원제도와 미국 표준안의 부채상환이 어

려운 사람을 위한 부채관리 지원, 개인과산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한국 표준안에 추가로 담긴 성취기준은 없다. 반면 미국 표준안은 담보대출과 무담보대출(신용대출)의 이자율 차이, 대학 학자금 대출, 계약금(선급금) 지급을 통한 부채액 감소, 소비자신용보호법<sup>2)</sup>, 대체 금융서비스 이용 시 높은 비용 지불 등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 담보대출과 무담보대출(신용대출)의 이자율 차이는 한국 표준안의 중학교(G8) 성취기준인 대출의 종류와 장단점과 관련이 있다.

### 6) 위협

<표 11> 두 나라 표준안의 위협 영역 성취기준 비교

학교급	한국 표준안	미국 표준안
초등학교 (G4)	1. 생활 속 위협의 사례와 대비의 필요성, 2. 위협관리 전략으로서 보험의 기능	1. 피할 수 없는 일상생활의 일부인 위협, 2. 위협 회피 노력, 3. 비상시를 위한 저축, 4. 보험의 필요성(위험에 따른 재무적 손실을 제한함)
중학교 (G8)	1. 위협의 유형과 위협관리의 필요성, 2. 보험의 기본원리와 다양한 종류의 보험	1.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재무적 손실, 2. 금융상품으로서 보험, 3. 보험의 원리, 4. 보험증권에 담긴 주요 용어(보험료, 공제, 자기부담금, 공동보험) 5. 위협관리 방법(회피, 감소, 보유, 전가), 6. 보증연장과 서비스 계약(제품의 기계적 결함에 대한 보호), 7. 신분 도용(신원 도용)
고등학교 (G12)	1. 손실의 빈도와 강도에 따른 위협관리 방법, 2. 사회보험의 개념과 사회적 역할	1. 위험감수 정도와 보험에 대한 지불용의 금액의 개인별 차이, 2. 보험 구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 3. 의무가입해야 하는 보험, 4.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 5. 건강보험, 6. 장애보험, 7. 자동차, 주택 소유자, 세입자를 위한 보험, 8. 생명보험, 9.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공적 보험), 10. 보험 사기, 11. 온라인 거래와 개인 문서 보호 실패의 문제점, 12. 보증연장과 서비스 계약은 일종의 보험증권

<표 11>은 한국과 미국 표준안의 위협 영역에 포함된 성취기준을 요약한 것이다.

2) 미국 표준안의 성취기준은 “소비자신용보호법은 신용 조건의 공개, 대출 차별, 채권 추심 관행을 규제한다.”이다. 한국 표준안에서는 금융과 의사결정 대영역 안에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 소비자 보호 중영역의 고등학교(G12) 성취기준에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이해한다.”라는 성취기준이 있다. 따라서 미국 표준안의 소비자신용보호법은 한국 표준안의 금융과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



초등학교(G4)에서는 두 나라 표준안 모두 일상생활 속 위험, 위험 회피 노력(위험에 대한 대비), 보험의 기능과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서 미국 표준안에서 비상시를 위한 저축 정도가 추가된 점이 두 나라 표준안의 차이점이다.

중학교(G8)에서는 보험의 원리를 두 나라 표준안의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외에 한국 표준안은 위험의 유형과 위험관리의 필요성, 보험의 종류를 추가하고 있는데 위험의 유형을 교수학습할 때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을 구분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 표준안에서는 보험증권의 주요 용어, 위험관리 방법, 제품의 기계적 결함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보증연장과 서비스 계약, 신분 도용(신원 도용)<sup>3)</sup> 등 주로 실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위험관리 방법(회피, 감소, 보유, 전가)은 한국 표준안의 고등학교(G12)에서 다루고 있는 성취기준이다.

고등학교(G12)에서는 두 나라 표준안 모두 사회보험(공적 보험)을 포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 한국 표준안은 손실의 빈도와 강도에 따른 위험관리 방법을 추가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 표준안은 중학교(G8)에서 이 성취기준을 다루고 있다. 한편 미국 표준안에서는 보험가입 관련 내용, 의무가입 보험,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 구체적인 보험상품, 보험 사기, 거래 시 개인정보보호, 보증연장과 서비스 계약도 일종의 보험증권과 같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구체적인 보험상품(건강보험, 장애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관련 내용은 한국 표준안의 중학교(G8) 성취기준인 다양한 종류의 보험과 관련이 있다.

## V. 결론과 시사점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금융교육 표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두 나라 표준안을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두 표준안은 각각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국가 수준의 금융교육 표준안이라고 할 수 있다.

3) 미국 표준안의 성취기준은 “신분 도용(신원 도용)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식별)정보를 사용하는 것이다.”이다. 이 성취기준과 관련한 학습성파로 신분 도용자가 신분 도용에 사용하는 방법,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행동,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재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열거하거나 토론하게 한다. 위험 영역의 고등학교(G12) 성취기준에서도 보험 사기, 온라인 거래와 개인정보보호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성취기준은 한국 표준안의 금융과 의사결정 영역(중영역으로는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해당 영역의 초등학교(G4)에서는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개인정보보호 방법을, 중학교(G8)에서는 금융사기 사례, 예방 방법, 피해 구제 방안을, 고등학교(G12)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각각 포함하고 있다.

먼저 양적인 측면에서 두 표준안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여섯 개의 내용 영역인 소득(수입), 지출, 저축, 투자, 신용, 위험의 성취기준 수와 비중을 살펴보았다. 한국 표준안에서는 학교급별로 뚜렷한 추세적인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미국 표준안에서는 소득(수입), 지출, 저축 영역의 비중은 저학년으로 갈수록 많아지고, 투자, 신용, 위험 영역의 비중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경향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 표준안보다는 미국 표준안이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더 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입), 지출, 저축 영역보다는 투자, 신용, 위험 영역의 성취기준이 상대적으로 학습하기 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두 표준안에서 성취기준의 비중 차이가 5%p를 넘는 영역을 찾아보았는데, 두 나라 표준안의 차이가 비교적 잘 드러났다. 소득(수입) 영역은 전 학교급에서 미국 표준안이 한국 표준안보다 5%p 이상 성취기준의 비중이 높았다. 위험 영역 역시 중학교(G8)와 고등학교(G12) 그리고 학교급을 통틀어 미국 표준안의 성취기준 비중이 한국 표준안보다 높았다. 반대로 지출 영역은 중학교(G8)와 고등학교(G12) 그리고 학교급을 통틀어 한국 표준안의 성취기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용 영역은 중학교(8)와 학교급을 통틀어 한국 표준안의 성취기준 비중이 더 높았다. 저축과 투자 영역은 두 나라 표준안의 성취기준 비중 차이가 5%p 이하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미국 표준안은 소득(수입)과 위험 영역을, 한국 표준안은 지출과 신용 영역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기록적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금융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지출과 신용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 표준안에서 지출과 신용 영역이 미국 표준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나라 표준안에서 성취기준 비중의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를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두 나라 표준안에서 성취기준 비중의 상대적 우위국**

영역(주제)	초등학교(G4)	중학교(G8)	고등학교(G12)	전체
소득(수입)	미국	미국	미국	미국
지출	-	한국	한국	한국
저축	-	-	-	-
투자	한국	-	-	-
신용	-	한국	-	한국
위험	-	미국	미국	미국

다른 한편으로 내용 측면에서 두 나라 표준안을 비교해 보았다. 성취기준 내용에 대한 자세한 비교 분석은 4장 3절에서 충분히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영역별로 한국 금융교육 표준안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논의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소득(수입) 영역에서 미국 표준안은 미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개인의 자질(인적자본)을 향상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전 학교급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또한 소득(수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고등학교(G12)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까지 다루고 있다. 한국 표준안은 다른 영역에서도 세금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데 반해 미국 표준안은 다른 영역에서도 세금 관련 내용을 조금씩이라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 영역에서는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과세 방식을 다룬다. 이런 점은 향후 한국 금융교육 표준안이나 국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출 영역에서 한국 표준안은 예산을 중영역 수준에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예산을 제외한 지출 영역의 내용은 각종 지불수단, 구매의사결정과정, 자신의 소비에 대한 평가 정도이다. 반면 미국 표준안은 개인의 지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용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소비를 하면 만족(편익)을 얻지만 동시에 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잘 수집하고 판단하여 소비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각 학년의 눈높이에 맞게 강조한다. 특히 고등학교(G12)에서는 내구재와 주택 구매 시 고려점, 광고와 가격협상 가능 여부가 소비자에게 주는 영향과 같은 실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 표준안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내용과 쓸모 있는 지출 관련 내용을 담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축 영역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학교급이 두 나라 표준안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저축 상품의 종류를 한국 표준안에서는 중학교(G8)에서, 미국 표준안에서는 고등학교(G12)에서 다룬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한국 표준안은 고등학교(G12)에서, 미국 표준안은 중학교(G8)에서 다룬다.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저축 상품의 종류는 고등학교(G12)에서, 예금자 보호 제도는 중학교(G8)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만 14세 이상이면 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sup>4)</sup>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본격적으로 금융 상품을 구입하려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가능하다. 따라서 저축 상품의 종류를 중학교(G8)에서 다루기보다는 고등학교(G12)에서 다루는 것이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아주 어려운 내용이 아니므로 중학교(G8)에서 다루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일부 은행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만 17세부터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투자 영역에서는 한국 표준안이 고등학교(G12)에서 자기 책임의 원칙,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강조한 반면, 미국 표준안은 자기 책임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대신에 미국 표준안은 수익률 계산 방법(연 수익률, 명목 수익, 실질 수익, 벤치마크 지수와 수익률 비교 등), 구체적인 자산배분 시 고려점, 투자에 영향을 주는 행동 편향과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금융 기술, 투자 서비스와 자문 얻는 법에 이르기까지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실용적인 내용을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간헐적으로 대규모 금융 사고를 경험해 왔다. 때로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금융 사기에 현혹되어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한다. 금융 사고의 이면에는 정부도, 금융회사도, 투자자도 모두 책임이 있다. 그런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 책임의 원칙과 투자자 보호 제도를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 영역에서는 한국 표준안이 신용사용의 결과에 대한 자기 책임, 과도한 부채의 문제를 강조한 반면 미국 표준안은 다양한 대출 이자율 차이와 대학 학자금 대출을 다룬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금융채무 불이행 문제가 지속적인 경제 현안이다. 이런 맥락에서 신용사용에 대한 자기 책임, 과도한 부채의 문제가 성취기준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투자 영역에서 강조한 자기 책임의 원칙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국 역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경험으로 인해 이자율 등 대출 비용을 강조하게 되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당시 금융기관의 대출광고에 현혹되어 무턱대고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가정이 많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출광고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미국 표준안의 성취기준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한국 역시 대학 학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지만 미국은 한국보다 대학 학자금 부담이 더 큰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미국 표준안의 고등학교(G12) 성취기준에 대학 학자금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위험 영역에서는 위험관리 방법과 보험의 종류를 다루는 학교급이 두 나라 표준안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위험관리 방법(회피, 감소, 보유, 전가)의 경우, 한국 표준안은 고등학교(G12)에서 다루고 미국 표준안은 중학교(G8)에서 다룬다. 거꾸로 보험의 종류(건강보험, 장애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등)의 경우는 한국 표준안은 중학교(G8)에, 미국 표준안은 고등학교(G12)에 포함되어 있다. 저축 영역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손실의 빈도와 강도에 따른 네 가지 위험관리 방법 중 전가(transfer)에 해당하는 것이 보험이므로 위험관리 방법을 먼저 학습하고 그 이후

보험에 대해 배우는 것이 논리적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2022년 말에 국가 교육과정이 새롭게 개정되어 고시될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에서 「경제」 과목 외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된다. 교육과정 시안에 따르면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은 행복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 수입과 지출, 저축과 투자, 신용과 위험관리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은지용 외, 2022: 420).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과 미국 금융교육 표준안의 내용 체계와 유사하다. 외형이 유사하다고 해서 그 속에 담긴 내용 요소 역시 비슷한 것은 아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융교육 표준안 역시 외형은 유사하지만 그 내용과 강조점은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가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의 교육과정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학교 금융교육에서 무엇을 언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는 데 논의의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김정호·권유진·김경모·박영석·차경옥·천규승·한경동(2010).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개발 연구** (연구보고 CRC 2010-22).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종성(2022). CEE와 JumpStart의 금융교육 성취기준. **금융교육연구**, 7, 71-102.
- 김종호·이준혁·이성숙(2011a).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 금융**. 서울: 금융감독원.
- \_\_\_\_\_ (2011b).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 금융 [교사용 지도서]**. 서울: 금융감독원.
- 박영석·김재준·정석민(2011a). **고등학교 생활 금융**. 서울: 금융감독원.
- \_\_\_\_\_ (2011b). **고등학교 생활 금융 [교사용 지도서]**. 서울: 금융감독원.
- 박형준(2017). 한국과 미국의 학교 금융교육과정 비교. **교육연구**, 70, 83-107.
- \_\_\_\_\_ (2020). 미국 점프스타트의 금융교육 성취기준. **금융교육연구**, 5, 73-85.
- \_\_\_\_\_ (2021). OECD의 금융 이해력을 위한 핵심 역량. **금융교육연구**, 6, 71-96.
- 박형준·김나영·신정아(2021a). **중학교 생활 금융**. 서울: 금융감독원.
- \_\_\_\_\_ (2021b). **중학교 생활 금융 [교사용 지도서]**. 서울: 금융감독원.
- 은지용·강대현·김명정·김민성·김병연·김승미·김주현·김현경·김현미·박보람·박상준·박정서·박형준·범영우·서범석·선헤란·성정원·송민섭·양지훈·유수진·윤신원·윤옥경·이경윤·이영호·이윤구·이정우·이종원·이진희·이혜영·임미영·임은진·전보애·정필운·조경철·조대훈·조철기·하준호·하진봉·한경동·한춘희(2022).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세종: 교육부.
- 이소연·권유진·김재근·김태환·한진수·박형준(2020).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개정 연구** (연구보고 CRE 2020-2).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장경호·하준호·김혜정(2021a). **고등학교 생활 금융**. 서울: 금융감독원.
- \_\_\_\_\_ (2021b). **고등학교 생활 금융 [교사용 지도서]**. 서울: 금융감독원.
- 천규승·차조일·문현주(2011a).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 금융**. 서울: 금융감독원.
- \_\_\_\_\_ (2011b).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 금융 [교사용 지도서]**. 서울: 금융감독원.

- 한진수 · 이바름 · 정수진(2021a).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 금융*. 서울: 금융감독원.
- \_\_\_\_\_ (2021b).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 금융 [교사용 지도서]*. 서울: 금융감독원.
-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2010). *Voluntary National Content Standards in Economics(the 2nd edition)*. New York: CEE.
-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2013). *National Standards for Financial Literacy*. New York: CEE.
-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2022). *Survey of the States: 2022 Economic and Personal Finance Education in Our Nation's Schools*. New York: CEE.
-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 Jump\$tart Coalition for Personal Financial Literacy (2021). *National Standards for Personal Financial Education*. New York: CEE and Washington, DC: Jump\$tart Coalition.
- Jump\$tart Coalition for Personal Financial Literacy (2015). *National Standards in K-12 Personal Finance Education (the 4th edition)*. Washington, DC: Jump\$tart Coalition.
- Kaiser, T., Lusardi, A., Menkhoff, L, and C. Urban (2022). Financial Education Affects Financial Knowledge and Downstream Behavior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45(2) Part A, 255-272.

## ABSTRACT

### Comparison of National Standards for Financial Educati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ark, Hyung Jo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National Standards for Financial Education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publish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 2020 and the *National Standards for Personal Financial Education* jointly published by CEE and Jump\$tart in 2021 and to fi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National Standards*. The comparative criteria were set into six categories: Income, Spending, Savings, Investment, Credit, and Risk in consideration of the common content framework in the two *National Standards*. First,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number and weight of standards for each topic included in the two *National Standards*, it was difficult to find a clear trend by school level in the *Korean Standards*. However, in the *U.S. Standards*, it was found that the lower grades dealt more with Income, Spending, and Savings, and the higher grades dealt more with Investment, Credit, and Risk. It was also found that the *Korean Standards* emphasized Spending and Credit relatively, while the *U.S. Standards* emphasized Income and Risk relatively. Next,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content of the standards in the two *National Standard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National Standards* were clearly found for each topic. Based on these results, some important discussions were suggest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Standards*.

**Keywords:** financial education, standards, personal finance, CEE, Jump\$tart



투고일자: 2022.08.17. 심사완료일자: 2022.09.09.. 게재확정일자: 2022.09.09.

박형준: 성신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임.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경제교육, 금융교육 및 시민교육 등에 관심이 있음. [hjoon@sungshin.ac.kr](mailto:hjoon@sungshin.ac.kr)